

자료제공: 2023. 6. 21.(수)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1일 오전 10:30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창업정책과장

이병철

2133-4750

창업정책팀장

신혜숙

2133-4751

담당자

권은숙

2133-4752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4쪽

### 서울시, 2030년 세계 최대 창업허브 개관...글로벌 유니콘 50개 키운다

- 오세훈 시장, 「서울 창업정책 2030」 발표...글로벌 유니콘기업 50개 육성 위한 강력드라이브
- ① 세계 최대 '서울유니콘창업허브' 건립, 1천 개 스타트업-글로벌 기업 365일 협력 기반 마련
- ② '해외진출-투자-혁신인재' 스케일업 3박자 지원체계 완성 '서울형 공유 오피스' 조성
- ③ 로봇,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서울성장동력화...거점기술력 강화하고 스타기업 육성
- ④ 구로에 '첨단 제조창업 기반시설' 구축, 펀드 조성해 장기투자...서울의 제조 경쟁력 강화

서울시가 203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기업을 키워내고, 1천 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서울유니콘창업허브'를 건설하는 등 세계 5위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 창업정책 2030'을 발표했다. 총 1조 6,717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성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10만  $m^2$ )'가 문을 열고, 고척에는 '서울 제조창업허브(1만7천  $m^2$ )'가 조성된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창업거점을 스페인, 싱가포르 등 20곳

으로 확대하고, 예비·초기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세권 공유오피스’를 선보인다. 20만  $m^2$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가 2028년 완성되고, 수서 일대는 로봇 기업이 집적하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해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생력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 서울시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기술창업 지원을 본격화하여 2011년 17개에 불과했던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이 2023년 30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1만 4천 개의 스타트업은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매출액 5조 7천억원 달성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 특히,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매출액, 성장성 등을 모두 고려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2021년 53조 원에서 2023년 274조 원으로, 단 2년 만에 5배 이상 높아졌고,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10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창업 선진도시로 발돋움했다. 올해 1월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중 서울시 지원으로 성장한 37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시장 속 우리 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투자 흑한기를 맞이했고, 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위

기를 겪고 있다. 짧은 기간 창업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서울 유니콘 기업의 증가속도가 미국, 독일과 같은 창업 강국에 비해 더디다는 한계도 마주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 10년이 우리나라 혁신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결정짓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현재 소폭 정체상태에 있는 서울창업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와 전폭적인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세계 5위의 창업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서울 창업정책 2030」을 21일(수) 발표하고, 강력한 창업 정책으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계획은 4대 핵심과제 ① 글로벌 창업도시 브랜드 구축, ② 성장단계별 스타트업 스케일업, ③ 4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④첨단 제조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비롯한 로봇, 핀테크, 바이오 등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총 22만 $m^2$  새로 구축하고, 첨단제조 투자펀드, 로봇 성장펀드 등 총 2조 5천억원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25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총 1만명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한다.
  - 2023년 현재, 15만 $m^2$  규모에 1,130개 기업이 입주 중인 창업지원공간은 2030년에는 37만 $m^2$ 로 확대되고, 입주 가능한 기업 수도 3,277개로 증가한다. (입주공간은 22만 $m^2$  확대, 입주 가능 기업은 2,147개 증가)

## 【①세계 최대 창업지원시설 개관…글로벌 창업도시 브랜드 구축】

□ ‘서울’이 세계 최고 창업 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한다. ‘서울=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유니콘이 탄생하는 도시’를 공식화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접점을 다각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① 먼저, 2030년까지 성수 삼포레미콘 옆 서울숲 주차장부지에 1천 개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10만 $m^2$ )를 조성한다. 파리의 스타시옹 에프(3만 $m^2$ ), 싱가포르의 JTC 론치패드(6만 $m^2$ )와 같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예비 유니콘까지 입주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1천억 원 전용 펀드도 조성하여 서울시가 미래 유니콘에 직접 투자한다. 관(官) 주도의 창업지원이 아닌 선배기업의 투자와 멘토링이 수시로 이루어져 동반 성장하는 서울형 ‘Pay it Forward 문화(성공한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실리콘밸리의 자발적인 문화)’도 최초로 정착시킨다.

○ 성수 삼포레미콘 부지는 글로벌 미래업무지구(Global Future Complex)로 변모할 계획으로, 과거 낡은 시멘트 공장에서 혁신과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미래산업의 거점이 된다. 서울숲과 성수 일대에 미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계적 기업이 대거 입주하여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의 스타트업과 365일 자유롭게 협업하게 된다. 시민들도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층부는 시민 이용공간으로 조성한다. 건물 디자인도, 운영 전략도, 입주기업도 모두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는 스타트업 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육성하

고, 투자해서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민간 책임제’로 운영한다.

- 또한, 기존 창업시설별 분산된 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창업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과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시설 관리와 보안, 친환경 기술, 시민들이 이용하는 푸드 테크 코트(Food Tech Court)까지 건물 전체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신기술 실증 공간으로 조성된다.

②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에브리싱(Try Everything)을 핀란드의 ‘슬러시(SLUSH)’와 같은 글로벌 최대 투자 축제이자, 세계 각국의 유망 스타트업 2,000개, 참가자 10만 명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유망 스타트업을 포함한 7백개 기업을 선발하여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세계 3대 기술박람회(CES, MWC, IFA) 전시, 투자와 마케팅까지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지원한다.

- 트라이에브리싱(Try Everything)은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공유하는 장에서 국내외 투자자와 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인공지능(AI) 등 서울의 미래 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2배 확대(현행 50개→100개)한다.
-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미국),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 IFA(국제가전박람회, 베를린)에 「서울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혁신성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창업도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다.

## 【② 해외진출-투자-혁신인재 3박자 지원…스케일업 육성체계 구축】

-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 실증,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창업거점’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공공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진출-투자-인재 3박자가 고르게 지원되는 스케일업 육성체계’를 다진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울형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700개의 단기형 창업공간도 공급한다.

① 서울시는 현재 베트남(호치민)과 인도(벵갈루루)에서 운영 중인 해외 창업거점을 미주·유럽·중동 등 2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스페인(10월), 싱가포르(11월)에 2개소를 구축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 서울시와 해외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공동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해 국내 사전훈련부터 현지 대·중견기업, 벤처 투자자와의 매칭, 후속 투자 유치 등 세일즈에 나선다.

② 민간이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반도 강화한다. 전국 투자자의 84%가 집중된 서울 테헤란밸리에 민간·공공 투자 네트워크 ‘테헤란포럼(가칭)’을 출범해 2024년부터 투자자, 기술보유 스타트업 등을 주축으로 투자 활성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업투자회사,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처 발굴부터 투자 실행까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③ ‘일할 사람 찾기 어렵다’는 스타트업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한다. 2025년까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이 완

료되어 연간 5천 명의 SW 개발자, 디지털 인재를 배출하는 인적자원 양성 기반이 구축된다.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 인재를 연간 1천 5백 명씩 현장과 매칭하여 2030년까지 1만 명이 스타트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 스타트업 현장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채용 분야 소개, 면접 등이 이뤄지는 ‘스타트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도에 따라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캠퍼스타운(대학)을 초기창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키운다.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별 ICT, 프롭테크, 헬스케어 등 강점 분야를 살려 청년 창업기업과 교수·연구원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연간 8백 팀의 예비, 초기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이 중 연 30개 창업팀은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광진구 소재)’를 통해 투자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프롭테크 :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⑤ 패션·리빙 등 생활밀착형 비즈니스를 보유한 예비, 초기창업자를 위해 창업하기 좋은 ‘창세권’을 구축한다. 동교동, 흑석동, 아현동 등 역세권과 청년인구가 밀집한 곳에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한 단기형 창업 공간을 최대 700개 공급한다.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바우처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컨설팅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민간 창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동교동, 흑석동, 아현동, 신정동, 장안동, 한강로동, 녹번동 등 총 7개소 46,600㎡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 기술창업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전 딥테크 기업 위주 지원에서 초기 단계 창업까지 두텁게 지원하여, 공유오피스에서 중소 규모 창업시설(서울창업 디딤터 등)으로 성장하고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같은 7대 창업허브로 이어지는 창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 7대 창업허브 : 서울 창업허브 4개소(공덕, M+, 창동, 성수), 서울핀테크랩, 서울바이오허브, 양재시허브

### 【③4대 미래산업의 서울성장동력화…스타기업 키워내고, 거점기술력 강화】

- 서울시는 ‘굴뚝 없는 미래산업’인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에 더해 차세대 혁신 성장 분야로 ‘로봇’을 선정, 4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체계를 강화한다.
- ① 첫 번째로 로봇산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봇 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서울은 서비스 로봇 산업이 발달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혁신 로봇 기술을 실증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로봇 스타트업의 기술 축적부터 상용화, 제품양산까지 가능한 장기투자의 기반을 다지고, '26년까지 로봇 성장펀드 2천억 원을 조성해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 로봇산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노동력 부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수단으로, 미래 신기술의 결집체이자 연 6% 이상 성장 중인 핵심 산업으로 손꼽힌다.
- 서울시는 사회구조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로봇화를 전면 도입한



다. 시립노인요양센터, 시립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시범적으로 돌봄 로봇을 도입하여 돌봄 로봇기업의 기술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수서 일대는 로봇 기업이 집적하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앵커시설로 서울 로봇테크센터를 구축하여 로봇 스타트업 사업화 전진기지로 삼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로봇 분야 산·학·연 핵심기관의 서울 분원을 유치하고, 로봇 테마공원과 로봇과학관도 조성하는 등 수서를 로봇 특화지역으로 육성한다. 연구기관과 협력해 ‘로봇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실무 중심의 로봇 인재를 2030년까지 1,500명 육성한다.

② 디지털 금융산업 핵심인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 한다. 여의도 금융지구 내 공공기여를 활용해 핀테크 창업과 성장을 가속하는 기업지원 기반을 확대 조성한다. 기존 1백 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 서울핀테크랩(여의도)과 제2핀테크랩(마포)을 통합해 2030년부터 170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③ 연구소-대학-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가 2023년 11월 세계적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한다. 바이오·의료,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 사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바이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2030년까지 바이오 펀드 1조 6천억 원을 조성해 연구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홍릉 일대의 바이오 클러스터 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23.11월)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홍릉 R&D지원센터('25년 2월)를 조성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홍릉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7년 2월)를 개관하여 126종의 전문 연구장비를 관련 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글로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바이오펀드 1조 6천억원을 조성하고, 의학·약학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연계도 확대한다.

- ④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m^2$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가 2028년 완성된다. 현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미래 산업의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이들을 위한 문화, 주거공간까지 갖춘 '서울 속 인공지능(AI) 산업도시'가 조성된다. 국내·외 인공지능(AI)전문 대학원,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이 양재 일대로 집적된다.
- 이곳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사업 실증, 타 분야 산업 간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 서울 인공지능(AI)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구로에 첨단 제조창업 기반시설, 펀드 조성해 장기투자·제조창업허브 조성】**

- 서울에 부족한 하드웨어 제작 기반 문제를 해결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항공, 전기차 등 제조업과 신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첨단 제조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 미국 등 창업 선도국가에서는 첨단 제조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

극적으로 투자 중인 상황으로, 서울수도 제조산업 집적지(용산,구로)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창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대규모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제조 창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 펀드를 조성하여 2030년까지 첨단 제조 유니콘 기업 10개 배출을 목표로 한다.

- ① 서울시는 고척동 서울남부교도소 이적지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제조창업허브(17,652㎡)’를 2027년까지 조성한다.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하여 아이디어 발굴 및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과 초도양산까지 제조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첨단 제조제품 현지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수출을 위한 현지 조사와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개량화, 인증, A/S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에는 미국 브루클린이나 중국 심천과 같은 제조 기반이 부족해 제품 개발을 포기하거나 제품을 외주 제작하는 기업 3곳 중 1곳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중으로, 이 과정에서 제품의 설계와 노하우가 유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첨단 제조창업 기업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 구로구와 금천구의 G밸리 일대는 IT 기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1만 2천개사가 집적되어 있고 마곡 첨단 R&D 클러스터와 관악S밸리와의 인접한 첨단 제조창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 ② 높은 생존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첨단제조 분야’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2024년부터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스마트 제조 등 첨단 제조기업만을 위해 기업당 최대 2백억원

을 투자하여 실질적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③ 첨단 제조 분야는 기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갖는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연구지원과 실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610억 원을 투입한다.

○ 첨단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에도 15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던 테스트베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군 실증범위 확대에 456억원을 투입한다.

□ ‘서울 창업정책 2030’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8,646억 원이 투입되며, 2030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총 1조 6,717억 원이다.

붙임 1. 신규 창업 기반시설 조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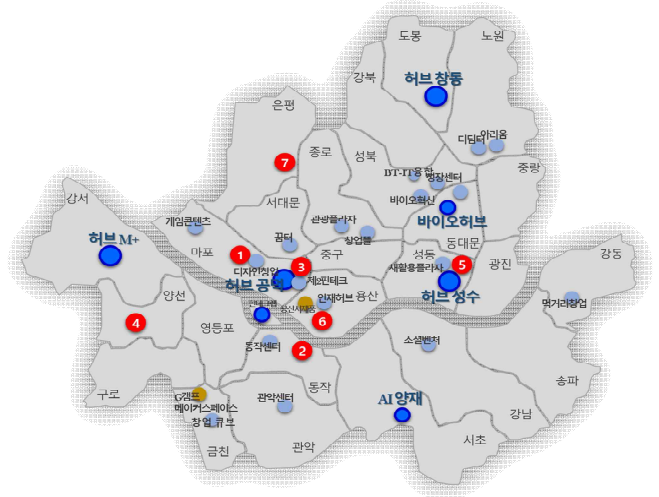
2. 연차별 투자계획

**붙임 1**

**신규 창업시설 조성계획**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sup>1)</sup> (106,000㎡)



서울형 공유오피스 (46,600㎡)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14,712㎡)



여의도 통합 핀테크랩(15,000㎡)



홍릉R&D 지원센터(2,050㎡)



서울 제조창업허브 (17,652㎡)

※ 그 외 서울 로봇테크센터(12,000㎡), AI 지원센터(10,020㎡) 조성예정

1)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한 예시 이미지

## 붙임 2 추진사업별 소관부서 및 투자계획

○ 투자계획 : '26년까지 8,646억원, '30년까지 총 1조 6,717억원

(단위:억원)

사 업 (소관부서)	합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b>총 계</b>	16,717	1,596	1,929	2,302	2,819	2,335	1,963	2,104	1,669
<b>① 글로벌 창업도시 브랜드구축</b>	434	20	26	37	41	55	70	85	100
1.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b>신규</b> (창업정책과)	2	-	2	삼표레미콘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6천억원 상당) 내 총당					
2. 최대 스타트업 투자축제 Try Everything (창업정책과)	272	20	21	31	30	35	40	45	50
3. 창업도시서울 브랜딩 <b>신규</b> (경제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160	-	3	6	11	20	30	40	50
<b>② 성장단계별 스타트업 스케일업</b>	6,850	814	910	844	844	841	856	866	875
1. 글로벌 창업거점 구축 (창업정책과)	227	19	24	24	29	29	34	34	34
2. 민간-공공 투자 기반조성 <b>신규</b> (창업정책과)	130	12	13	15	15	16	18	20	21
3. 혁신인재 1만명 공급 (일자리정책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6,493	783	873	805	800	796	804	812	820
4. 서울형 공유오피스 조성 <b>신규</b> (창업정책과)	-	기부채납시설 활용하여 조성 추진							
<b>③ 4대 미래산업 육성</b>	5,817	712	693	841	1,311	716	479	514	551
1. 로봇 스타기업 육성 <b>신규</b> (경제정책과)	754	60	75	80	499	10	10	10	10
2. 핀테크 산업 성장 가속화 (금융투자과)	1,549	136	180	253	275	179	168	176	182
3.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바이오SI산업과)	1,552	295	255	306	315	283	32	33	33
4. AI 서울 글로벌 창업 클러스터 <b>신규</b> (바이오SI산업과)	1,962	221	183	202	222	244	269	295	326
<b>④ 첨단제조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b>	3,616	50	300	580	623	723	558	639	143
1. 서울 제조창업허브 구축 <b>신규</b> (창업정책과)	1,006 (규모150억)	2	42 (30)	262 (30)	251 (30)	291 (30)	72 (30)	43	43
2. 첨단 제조 투자 펀드 조성 <b>신규</b> (창업정책과)	2,000	-	200	250	300	350	400	500	-
3. 제조특화 연구개발·기술실증 <b>신규</b> (경제정책과)	610	48	58	68	72	82	86	96	100